

“배우들도 스토리 몰라...스포일러 걱정 없어요”



KBS 2TV 주말드라마

대본이 방송 한주를 앞서갈 뿐이라 제작진도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모른다. 시청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우들도 자신의 앞날을 모른다. 그래서 배우들도 시청자만큼 몸이 바짝 달아오른 채 대본을 기다린다.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의 상황이다.

지난 10일 방송된 30회에서 마침내 전국 시청률 40%를 넘어선 ‘황금빛 내 인생’은 이제 꿈의 50%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전국 시청률 41.2%. 광주 지역에서는 44.7%로 45%에까지 근접했다.

KBS에서는 “현재의 시청률 40%는 과거의 40%와 다른 의미”라며 “제감 인기가 시청률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 20회가 남았고, 클라이맥스도 찍지 않은 만큼 시청률은 얼마든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주말 오후 8시엔 TV를 켜 시청자의 절반 이상이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금빛 내 인생’은 매회 공금증을 한껏 끌어올리는 결말을 선보이며 시청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편집 트릭을 활용해 시청자를 깜짝 속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드라마의 이후 전개에 대한 문의가 배우와 제작진에게 쏟아지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황금빛 내 인생’ 시청률 40% 돌파 매회 공금증 한껏 끌어올리는 결말 시청자들 드라마 전개 문의 쏟아져 체감 인기 높아...50% 돌파도 꿈꿔

서 기억상실증이나 교통사고를 유추하게 만드는 신이 나왔을 때 인터넷은 시청자들의 공금증으로 끓어 올랐다.

그러나 결론은 배우도, 제작진도 모른다. 소현경 작가가 방송보다 한주 앞서서 속도로 대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6~17일 방송되는 게 31~32회인데 현재 대본은 33~34회만 나와 있는 식이다. 이로 인해 촬영은 매주 ‘생방송’ 시스템처럼 분주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스포일러가 퍼져나갈 염려도 차단되고 있다.

한파 속 바쁘게 촬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청률 40% 돌파에 배우들의 욕심도 커지고 있다.

제작 관계자는 16일 “배우들이 서로 더 좋은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줄고 힘든 상황임에도

도 누구 하나 지치지 않고 연기 불꽃을 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또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배우 소작가와 출연진이 참석하는 전체 대본 연습 시간을 가지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드라마의 성공으로 신에 신혜선과 스캔들을 딛고 지상파에 복귀한 박시후의 앞에는 꽃길이 열렸다.

신혜선의 소속사 YNK엔터테인먼트의 김민수 대표는 “매주 일요일 방송이 끝나면 사방에서 지인들의 문자나 전화가 온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작 제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배우가 검토할 시간 자체가 없다”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경거망동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박시후의 소속사 후백제투리의 김성훈 이사는 “KBS를 통해 복귀해서 성공하고 나니 작품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드라마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저 조심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영화 ‘강철비’ 사흘 만에 100만 관객

‘변호인’ ‘국제시장’ 보다 기록 앞서

정우성·곽도원 주연의 영화 ‘강철비’가 개봉 사흘 만에 관객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봉한 ‘강철비’는 이날 오후 8시30분 기준 누적 관객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양우석 감독의 전작 ‘변호인’(2013)과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2014) 등 12월에 개봉해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의 100만 돌파 기록을 하루 앞당긴 것이라고 배급사 뉴스 전했다.

‘강철비’는 북한 내 쿠데타가 발생하고 북한 권력 1호가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펼쳐지는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다.

/연합뉴스



한국·독일 등 6개국 미래 교육 방향 검토

EBS 2부작 ‘미래인교육’ 18~19일 방영

미래 교육을 주제로 6개국에서 공동제작한 다큐멘터리 ‘미래인(人)교육’이 방송된다.

EBS TV는 2부작 ‘미래인교육’을 18~19일 밤 9시50분에 방송한다.

한국, 싱가포르, 인도, 몽골, 베트남, 독일의 방송사와 제작사가 참여해 각 나라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 아래에서 성장해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조명하며 미래 교육의 방향을 검토한다.

1부 ‘좋은 부모 나쁜 부모’에서는 퇴근 후 매일 밤 9시 침판 앞에서 서는 한국 아빠의 이야기, 빼곡한 시간표를 더 잘게 나누는 싱가포르 엄마,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완벽한 독일 엄마 등 각자의 방식대로 자녀 교육에 힘을 쏟는 가족들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어떤 가정교육,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2부 ‘꽃길 흠길’은 몽골, 베트남, 인도의 가정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살핀다. 또 사회적 성공을 향해 달리는 우리의 교육이 미래에도 유의미한 것인지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 등과 함께 살펴본다.

EBS는 “각양각색 가정의 생생한 고민과 노력이 담긴 특별한 이야기는 인도 소수 민족 언어를 포함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문화 교류의 하나로 참여국 모두에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20 MBC네트웍특선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2TV 생생정보	00 MBC 뉴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영화가 좋다(재)	50 투깝스(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UHD 한식의 마음	50 저글러스(재)	00 MBC 뉴스 10 투깝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산		00 MBC 뉴스 10 투깝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특 Talk(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2017 시민행복합창제	50 VJ 특공대	20 문화사색	55 닥터 365
2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1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드림 유니버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20 남도 지오그래피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25 사이닝스타 55 꾸러기 식사교실	
4	00 4시 뉴스집중		2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간다큐, 사람(재) 35 UHD 한식(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산(재) 30 살림하는남자들 스페셜	00 MBC 뉴스 10 앙코르 MBC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밤산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왠수들 55 MBC 뉴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체보자들	35 투깝스(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15 월요기획 태권도, 다시 세계를 품다	10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10 아시아의 향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찰스(재) 50 생활의 발견	50 사랑의 가족(재)	10 천년의 전라도 25 겁 없는 녀석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15 꼬마기사 마이크	20:40 다큐 오늘 (몽골종다철도)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중국 마오 죽 자매 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사과발효액과 삼겹살샐러드)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마직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쿵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19:00 로보 발명왕 라스티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교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인살라, 모로코 1부 강렬한 색채의 나라> 21:30 한국기행 <아공이행 1부 백년 묵은 아공이> 21:50 EBS 다큐프라임 <미래인교육> 22:45 엄마를 찾자마 23:35 까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더블 가족 이야기 6부>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07:00 허중선이 과학쇼	12:10 글로벌 가족정체기 -한국에 산다		
07:30 로보카 폴리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온드(재) 13:40 엄마를 찾자마(재) 14:30 레이디버그 15:00 우주탐험기 깃		
07:45 출동! 슈퍼월드			
08:00 똥똥똥 유치원 1~2			
08:30 클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케트			
09:15 소피 루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8일(음 11월 1일 己卯)

子	48년생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니 신중하자. 60년생 막연한 방식이 패악을 불러 오는 법이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72년생 오감을 만족시키는 기쁨이 보이느냐. 84년생 예상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48	午	42년생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느니라. 54년생 강인한 정신과 굳센 추진력이 필요하다. 66년생 기사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게 바뀌리라. 78년생 미리 대비하라. 90년생 향후의 효용성이 높아진다. 행운의 숫자 : 10, 01
丑	49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61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73년생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85년생 이것저것 욕심내다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니 가장 핵심적인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8, 34	未	43년생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면 나아가기 어렵다. 55년생 정성을 다 하면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된다. 67년생 진행시켜왔던 일에 온통 집중하자. 79년생 절실한 상황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다. 91년생 보류했을 때는 무리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69, 43
寅	50년생 사심을 버려야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62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 지 살펴 볼 일이다. 74년생 습관적인 일상에 얽매어서 규모를 줄이지 못 하면 타격이 오리라. 86년생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리라. 행운의 숫자 : 70, 39	申	44년생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오랫동안 지연되는 양태이다. 56년생 지난해에 비추어 가볍게 여긴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68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을 알라. 80년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5, 92
卯	51년생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63년생 쌓아온 공로가 자신의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75년생 오는 손바닥 막지 말고 가는 손바닥 잡지 말지어다. 87년생 지리멸렬하였던 과거사가 가타이 잡히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09, 77	酉	45년생 충분한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익이다. 57년생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예의 주시하자. 69년생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관망은 결과가 보인다. 81년생 자기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무리 없이 추진하자. 행운의 숫자 : 30, 15
辰	52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64년생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니라. 76년생 흐르는 물처럼 순조롭게 가니 마음 편히 먹고 일하면 된다. 88년생 기대를 잔뜩 하여 왔던 바와는 별개로 투쟁을 열어보면 실망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72	戌	46년생 참신한 발상만이 진부함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58년생 극진한 정성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70년생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합리하다. 82년생 바야흐로 성공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행운의 숫자 : 94, 23
巳	53년생 장고 끝에 얻은 결정이 만사를 주도하리라. 65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척결이 시급하니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만 한다. 77년생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89년생 한 가지를 처리하면 서 많은 수확이 뒤따라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1, 93	亥	47년생 마음이 풀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59년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산적이다. 71년생 이룰 수도 저물 수도 없을 것이다. 83년생 선부터 판단을 한다면 후회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최종 선택을 하라. 행운의 숫자 : 27, 7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